

돌 과 땅

2012년 8월 24일 _ 9월 30일

ggooll

공간 꿀

전시제목: 돌과 땅

전시장소: 공간 꿀 (서울시 한남동 683-31)

전시일시:

-2012년 8월 24일 ~ 9월 30일

-오프닝 8월 24일 7시

-오프닝 공연 8월 24일 7시 30분 (약 30분, 더아웅다웅스 공연기획)

참여작가

김계중(영화 감독), 미디어버스(소규모 독립 출판 그룹), 사진아카이브 연구소,
서원선(종이접기 작가), 더아웅다웅스(공연 기획팀), 워크온워크(전시 기획 이니셔티브),
조은(사회학자/다큐멘터리 감독). 이상 가나다순

기획: 윤지원(현대미술가)

공간디자인: 이수성(현대미술가)

전시이미지 디자인: 김성윤(회화 작가)

텍스트 디렉터: 우아름(미술비평)

기획의도

손에 닿는 가장 작은 돌에서, 그는 약속된 땅의 파편을 알아보는 것이다.

-폴 오스터

2010년대 한국이라는 시공간의 현대미술은 어떤 지속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을 것인가. 이 전시는 개별 작업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엮어 하나의 주제 아래 두려는 시도가 아니다. 이번 전시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지니는 규정하기 어려운 위치들과 이들 작업의 존재 양식이다. 이번 전시에는 현대미술작가 김성윤, 이수성, 미술기획 이니셔티브 워크온워크, 공연기획팀 더아웅다웅스, 종이접기 작가 서원선, 사진 아카이브 연구소, 소규모 출판 그룹 미디어버스, 사회학자이면서 다큐멘터리 감독인 조은, 실험영화제 프로그래머이자 영화감독 김계중이 참여한다. 본 전시에서는 전시 공간을 통해 이들의

작업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작업의 맥락과 작가에 대한 정보를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인터뷰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전시공간과 대화하는 또 하나의 탐구의 공간을 열어 줄 예정이다.

작업설명

1층에는 두 라이브러리가 들어선다. 전시장 입구에서 마주치게 될 라이브러리는 미디어버스의 <공통의 목록>. 미디어버스는 출판사이자 책과 전시의 기획자로서 그간 수집해 온 소규모 출판물을 보여 준다. 소규모 출판물은 주류 출판이나 담론에서 배제된 작은 이야기나 이미지들을 담고 있다. <공통의 목록>은 미디어버스가 지금까지 자신들이 내 온 책들을 포함해 국내외 약 300여 권의 진(Zine, 소규모 출판물)들을 정리한 라이브러리다. 라이브러리의 전체 구성을 통해 우리 사회의 선택과 배제의 정치에 의한 결과물로서의 소규모 출판물의 공통적 특징을 보여 주는 동시에 각각의 출판물을 통해 사적인 매체 각각이 지닌 개별적 특징을 보여 준다. 이 라이브러리의 목록은 미디어버스가 정한 태그에 의해 분류되며 이 분류 방식을 담은 마니페스토 포스터는 디자이너 홍은주와의 작업을 통해 만들어질 예정이다.

또 하나의 작은 라이브러리를 선보이는 사진아카이브연구소는 지난 10여 년간 기록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각문화유산으로서의 사진의 가치를 공공에게 제공하기 위해 사진 기록물의 아카이브 구축과 사진 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연구 활동, 이와 관련한 문화·예술 교육에 힘써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8종의 사진 아카이브 출판물과 2004년 서울시립미술관의 <다큐먼트>전에서 선보이기도 했던 일제강점기 조선의 모습을 담은 사진 아카이브를 통해 사진아카이브연구소의 활동과 기관의 성격을 개략적으로 소개한다. 더불어 본 전시를 통해 처음 선보이는 <이상한 아카이브: 반공시대의 한 풍경>을 통해 구성과 배치에 의해 의미를 재맥락화하는 아카이브의 특성을 보여주는 한편, 한편으로는 한 아키비스트의 애정의 대상과 흥미의 방향이 드러나리라 기대한다.

2층의 가옥에는 영상과 종이접기 작품이 들어선다. 가옥 안의 방은 조은의 <사당동 더하기 22>와 김계중의 <대일 프로젝트>가 번갈아 가면서 상영되는 스크리닝룸으로 분한다. 조은은 29년 동안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쳐 온 교육자이자 수많은 논문과 더불어 때로는 장르와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 결과물을 발표해 온 저명한 사회학자다. 철거를 앞둔 재개발 지역에서의 현장 연구를 통해 알게 된 한 가족을 22년간 기록한 자료로 다큐멘터리 <사당동 더하기 22>를 만들었다. 한 가족의 이주사와 빈곤의 구조를 다룬 본 영상이 지난 2, 30년의 한남동 도시 생태의 변화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공간 끝에서 상영될 때 한 겹의 의미가 덧대질 것이라 기대한다. 조은의 다큐멘터리 영상이 사회학자의 오랜 연구를 통해 생성된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김계중의 <대일 프로젝트>는 영화의 형식과

영화를 찍는 행위 자체 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 김계중은 서울국제실험영화페스티벌의 프로그래머이자 대안적인 형식의 영화를 꾸준히 만들어 온 영화감독으로서 스스로 영화의 리얼리즘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다. 관객들은 이 두 영상을 통해 현실의 기록과 기록의 현실이 얽혀 든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조은과 조은을 도운 연구조교들이 재개발 지역에서 찍은 50여 점의 사진도 공개되는데, 이 사진들은 가난의 기록일 뿐 아니라 연구자의 사진에 대한 관심, 연구의 과정, 80년대의 시각문화와 같은 풍부한 텍스트들을 폭넓게 품고 있다.

조은의 사진을 거쳐 시선을 돌리면 서원선의 작업을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유일한 종이접기Origami 전업 작가로 알려진 서원선은 종이접기에 대한 세간의 빈약한 인식과 아이들의 놀이라는 편견에도 불구하고 곳곳하게 종이접기라는 분야를 세워 가는 선구자처럼 보인다. 종이접기는 일반적으로 종이 한 장을 자르거나 붙이지 않고 접어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는 행위다. 서원선은 본 전시에서 종이로 만들어 낸 생태계(물고기)의 일부와 도면 전시를 통해 종이접기의 다양한 요소와 종이접기의 생태계를 보여 준다.

더아웅다웅스는 2년 전 꿀(꿀)에서의 공연을 계기로 결성된 공연기획자 듀오로 얼마 전 아트선재센터에서 열었던 <북조선 펑크록커 리성웅>전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주로 일반적이지 않은 공연 공간의 환경과 조건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공연을 기획한다. 공간 꿀의 계약 만료로 인한 폐관 6개월여를 앞두고 이들은 다시 한 번 꿀에서 문자 그대로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공연을 기획할 예정이다.

전시기획자로는 드물게 팀의 형태로 활동하는 워크온워크의 전시 <힛앤런>과 <당신의 머리 위에 그들의 발 아래>는 모두 전통적인 전시 공간을 벗어난 곳에서 선보인 전시로서 각각의 공간적 제약과 난점을 풍부한 의미로 바꾸어 놓은 기획이었다. 본 전시에서 워크온워크는 작가로 분해 아주 작은 실천 혹은 실마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김성윤은 여러 겹의 재현의 층을 통과한 회화 작업을 선보여 온 작가다. 기획자로부터 전시 컨셉을 듣고 이 전시를 대표할 만한 이미지를 제작해줄 것을 요청 받은 김성윤이 제작한 2점의 이미지는 공식적인 매체에서 전시를 대표하게 될 것이며, 전시장인 공간 꿀의 간판 그림으로 걸린다. 김성윤은 제목 그대로 지하철 3호선 안국역의 대피도를 그린 그림인 <안국역 대피도>와 <파괴된 안국역 대피도>를 제작했다. 작가에게 안국역은 미술전시를 보기 위해 거쳐가는 장소로서, 미술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장소임과 동시에 그 기대가 좌절되는 경험을 맛보게 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한 <파괴된 안국역 대피도>는 해당 전시 외에도 근년과 최근 며칠 사이에 일어난 비극적 화재 사건들을 의도치 않게 연상시킨다.

이수성은 설치미술가로서 전시장의 공간 디자인을 맡아서 진행한다. 아트선재센터의 <북조선 펑크록커 리성웅> 무대감독이기도 했던 이수성은 강한 시각적 자극으로 유명한

공간 꼴을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 보이게 연출함과 동시에 라이브러리의 가구 제작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맡아 진행한다. 이수성의 이번 작업은 그가 이제껏 현대미술공간에서 선보여 온 작품들과는 달리 실용적인 목적에 봉사하지만 그의 전작들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둔탁한 물질감이라든가 미니멀한 미감을 그대로 지닌다.

여러 매체에 미술에 관한 글을 쓰는 우아름은 해당 전시와 관련된 모든 글의 편집과 교열을 맡았다. 본 전시에서 생산해내는 모든 글은 우아름의 검토를 거친다. 글을 손보는 일 외에도 이 전시를 위해 쓰인 한 편의 글과 작가 소개 글을 작성하며 전시와 함께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인터뷰를 윤지원과 함께 진행했다. 인터뷰집의 디자인과 웹 공간 구축은 디자이너 구인회가 맡아 진행했다. 참여작가들의 인터뷰와 작가소개는 <http://stoneandland.tumblr.com/>

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간 꼴(www.altpool.org)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들어갈 수 있다.

공간 꼴에서 선보이는 개별 작업들은 모여서 또 다른 의미군을 형성한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비-현대미술가인 참여자들의 작업은 미술 아닌 미술로서, 이른바 '미술계'의 창작 기반과 인정 체계에 작업의 운명을 맡기지 않는 전문적 창작 행위다. 이는 오늘날 현대미술의 전제 조건들과 경계들을 부분적으로 드러낸다. 이를 통해 우리가 접하고 있는 현대미술의 전제 조건들을 의심하는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재편될 앞날의 미술에 대한 상을 그려 볼 단초들을 제공해 보고자 한다. 전시 참여 작가로 쉽게 보지 못할 이들이 작가 역할을 하고, 평소 작업을 선보이는 이들이 전시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소화해냈다. 모종의 역할놀이가 섞여 든 이 전시는 현대미술가 윤지원이 기획했다.



Super Position / Superposition
Counter Festival on Art, Love, Money & Habitat
2012. 02 - 11 한남동 꼴 & 꼴뿔
아트 스페이스 풀 기획
For more information www.altpool.org T. 82(0)2 396 4805

풀

★ ggooll



Arts Council Korea